



국제화 시대의 학생 복지

이재성 | 포항공대 학생처장

I. 들어가며

새로운 세기를 맞으면서 세계 각국은 교육이 미래를 대비하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며 특히 대학교육의 질이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적으로 지난 20년 동안 고등교육의 개혁이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우리나라도 대학교육의 질에 대한 우려가 교육계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배출되는 학생들의 실수요자인 산업계를 포함한 사회 각층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정부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 개혁에 대한 논의 또한 온 국민들의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교육 개방과 국제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 대학의 세계적인 현 주소가 알려지면서 국민들은 실망과 때로는 허탈감까지 느끼며, 좀더 나은 교육 여건을 찾아 많은 우수 고교 졸업생들을 외국 대학으로 유학시키고 있다. 자국민에게서도 불신을 당하는 우리 대학교육이라면 우리 국가의 미래는 걱정이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대학교육의 개혁 및 개선에 대한 논의는 교육과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물론 이것은 대학의 가장 중요한 두 역할이 교육과 연구라는 면에서 당연한 현상이나, 이러한 교육과 연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학생 복지 문제도 대학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에 대한 보다 깊은 관심이 요구된다. 특히 세계적

인 선진 대학들에 비교하여, 가장 열악한 것이 우리 대학의 학생 복지 제도 및 시설이다. 외국의 대학들은 대개가 캠퍼스 자체가 그 지역의 명물로서 체육 시설, 편의시설 및 문화공간(박물관, 도서관, 극장 등)이 잘 갖추어져 있어, 학생과 지역 주민의 사랑을 받는다. 학생들은 대부분 집을 떠나 기숙사에서 기거하며, 독립심과 사회생활을 배운다. 집안이 가난한 학생들도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과 정부에서 제공하는 장기 저리 대출, 그리고 약간의 부업을 통하여 자력으로 학업을 마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의 현실은 어떠한가? 좁은 면적에 과밀도로 들어선 멋없는 건물들과 허술한 관리 때문에 저분해된 시설들이 우선 생각나는 것이 우리 대학 캠퍼스에 대한 인상이다.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이며, 그 기숙사에 들어가도 좁은 면적에 많은 사람을 수용하여,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 장학금은 일부 성적 우수자에게만 국한되어 집안이 어려운 학생이 대학을 마치기 위해서는 부모의 재산을 잠식하거나 학생이 학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과외를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공부와 연구에 전념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II. 국내 대학 학생 복지 관련 지표

그러면 국내 대학들의 학생 복지에 관한 현실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몇 가지 대표적인 관련 지표를 살펴보기로 하자. 아래의 표는 중앙일보가 대학 평가를 위하여 1999년 조사, 발표한 데이터 중 발췌한 것으로서 국내 최고와 국내 평균을 비교하였다.

국내 최고의 경우는 모든 지표에서 포항공대와 KAIST가 나누어 차지했는데 이 두 대학이 교육과 연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비교하여 볼 때, 이는 교육과 연구, 학생 복지가 전혀 별개가 아니고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또한 이 두 대학의 지표가 국내 평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 수준과 비교할 때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우리 대학의 전체적인 수준이 세계 수준과 얼마나 큰 괴리가 있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특히 열

악한 것이 기숙사 시설로서 학생의 10%도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대학생이면 이미 성인으로서 외국 대학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입학하면 일단 집을 떠나고, 그들이 필요한 주거 시설의 많은 부분을 대학 기숙사에서 해결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제반 시설의 면적으로 볼 때도 우리 대학들이 시설에 비하여 너무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물론 포항공대와 KAIST는 특수한 연구 중심 대학으로서 일반 대학에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학생 복지라는 것이 끝이 없으며 많은 투자가 수반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일단계로서 국내의 평균이 최고 수준의 50% 정도까지는 빨리 따라가 주어야 세계화, 혹은 국제경쟁력에 대한 꿈을 꾸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표 1〉 학생 복지 관련 지표 비교

항목	국내 최고	국내 평균
학생당 장학금(만 원)	95(KAIST)	22.1
장학금 수혜율(%)	120(포항공대)	30.1
기숙사 수용률(%)	100(포항공대)	8.2
학생당 강의실 면적(m ²)	33.37(KAIST)	7.2
학생당 연구실 면적(m ²)	22.3(포항공대)	0.75
학생당 도서실 면적(m ²)	5.2(포항공대)	0.9

출처 : 중앙일보(1999). 이중 수혜자 포함.

Ⅲ. 보다 높은 차원의 학생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

위에서 언급한 지표들은 학생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 필요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여건과 인프라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21세기를 맞이하여 날로 심해져 가는 세계 차원의 지식 경쟁 속에서, 국제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을 양성해야 하는 우리 대학은 단순한 학생 복지와 캠퍼스 환경 개선 등을 뛰어 넘어 보다

높은 차원의 학생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보화 시대에 걸맞은 캠퍼스 전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이 지식을 창출하고, 그 지식을 전달하는 장일진데, 빠르게 변하는 정보 기술을 빨리 받아들여 캠퍼스가 최첨단의 작은 정보화 사회가 되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몸으로서 이를 체험하도록 하여야 한다.

국제화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외국어, 특

히 영어의 구사 능력이다. 대학은 학생들이 외국어를 배우고, 외국어의 필요성을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교내 외국어 연수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외국어 강의, 외국인 교수 초빙, 외국인 학생 유치 등 교육과 직접 관련된 것 외에도 교내 표지판이나 서류, 게시물에 영어를 병기하는 것 등도 생각할 수 있다. 캠퍼스 국제화가 이루어져야 외국인 과학자나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찾게 되고 아울러 국제경쟁력도 높아질 수 있다.

끝으로 학생들을 보다 문화적으로 훈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대학은 지식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문화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대학교육의 목적은 지식인만을 양성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인 사고와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균형된 지성인을 길러내야 한다. 오히려 대학은 상업적인 대중문화만이 판치는 사회를 리드할 수 있는 고급 문화를 창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많은 문화 관련 활동이 캠퍼스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로 포항 공대와 KAIST는 15년 전부터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우 높은 수준의 음악, 무용, 연극, 영화, 교양강연 등을 학생,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 후 이 프로그램은 몇몇 종합 대학에도 전파 되었는데, 예술대학이 없는 두 이공대학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고 가장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포항공대에서는 학생들에게 봉사활동, 답사, 병영체험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넓은 세상 바라보기 라는 프로그램을 학생 스스로 운영하도록 경제적 지원을 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다. 국내 몇몇 대학에서는 또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그리고 리더십을 훈련시키기 위한 프로그램들도 마련하고 있다.

IV. 끝 맺으며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복지를 구현하기 위해 당장 봉착하는 문제가 재정 확보다. 재정확보 없이는 학생 복지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그렇다고 학생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을 등록금 인상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우리 대학의 발전 전략이 선진 대학을 벤치마킹하는 것이라면, 우리나라 대학들의 등록금 의존 비율은 외국 대학들에 비하여 턱없이 높다. 정부나 공공부문, 그리고 기부금 등 사회부문의 공헌이 대폭 늘어나야 한다. 우리나라처럼 대학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에서는 대학을 거의 방치 상태에 두고 있는 경우가 세계에 어디 있는가?

학생 복지를 교육과 연구에 대한 투자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학생 복지에의 투자가 오히려 대학 경쟁력의 시작일 수도 있다. 특히 국제화 시대인 지금에는 더욱 그렇다. 시설 설비의 현대화, 도서관, 전산소의 기능 강화, 장학금의 충분한 확보, 교내 주거 시설의 확충, 학습 환경 개선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캠퍼스 정보화, 캠퍼스 국제화, 그리고 문화 프로그램 등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성인을 배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마련되어야 한다. **한**

이재성

서울공대, KAIST를 졸업하고 미국 Stanford 대학에서 화학공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Catalytica 연구원, Yale대학 방문교수, LG·삼성 등의 기술고문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포항공대 학생처장 및 화학공학과 교수로서 Catalysis Letter 등 3종 국제학술지의 편집위원을 맡고 있으며 국내외 학회에서 활동 중이다. 에너지, 환경기술에 관한 160여 편의 연구 논문과 40여 건의 특허가 있다.